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천연기념물 황새
보호 인공 둥지탑 설치

부안군은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송진탑 위에 둥지를 틀어 정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황새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 둥지탑을 설치하고 지난 25일 황새를 이동했다고 밝혔다.

해당 황새 둥지는 고압 송진탑 위에 위치해 정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황새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안군은 인공 둥지탑을 설치한 뒤, 예산 황새공원 황새탑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업을 통해 송진탑 둥지에 있던 새끼 황새들을 조심스럽게 인공 둥지로 옮겼다. 이후 어미 황새가 새끼를 따라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민원서비스 등
우수공무원 10명 선정

고창군이 26일 신속·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준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분야 5명, 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 5명을 선정해 군수 표창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고창사랑상품권을 제공했다.

‘국민신문고 분야’는 민원처리 건수, 담당자의 민원요지 파악, 답변의 성실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고성민(사회복지과), 김복남(도시디자인과), 전제민·서승원(종합민원과), 송유원(도시디자인과) 주무관을 선발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는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법정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 단축 일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선발한다. 염필선·박태호(건설과), 이상현(상하수도사업소), 조혁(신원력경제정책관), 노용기(산림복지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삼태마을숲,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고창군, 성송면 삼태천 따라 800여m길이… 국가유산청서 가치 대외적 인정 ‘쾌거’

고창군은 ‘고창 삼태마을숲’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고창의 풍부한 자연유산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로, 지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 삼태마을숲은 고창군 성송면 하교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형성된 800여m길이의 마을숲으로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져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왕버들 노거수 95그루를 비롯해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그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200여년 이상 각종 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온 호인림, 방풍림 역할의 대규모 전통 마을숲으로 19세기 전라



도무장현도’에 남아 있으며, 풍수 비보 역할의 구전이 전해지는 등 역사적, 신앙적 의미가 큰 숲이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배 형상의 마을이 거친 삼태천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묶어두는 말뚝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유서 깊은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와 공동

체의 역원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고창군은 삼태마을숲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학술회의 및 자료보고서 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삼태마을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고창의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증거이자 고창군민들의 자부심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사랑상품권, 시민 혜택 ·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

발행액 1000억원으로 확대

정읍시가 민생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발행액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8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 시민 체감 혜택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발행액 1000억원은 정읍사랑상품권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시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판매 정책도 대폭 개편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기존에 운영되던 연간 구매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필요한 시기에 많은 금액을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돼, 상품권의 실용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월별 발행 규모를 기존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40억 원 늘려, 자금이 지역 상권으로 보다 빠르게 유

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사랑상품권은 매일 1일 오전 8시부터 판매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충전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한 등에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에게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리적표시제 고창수박, 5000등이 완판… 80억원 경제효과

전북 고창군이 ‘지리적표시 인증 고창수박’을 국내 대표 프리미엄 수박 브랜드로 우뚝 세우는데 성공했다. 단순한 지역 특산물의 범주를 넘어 전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품 수박’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국내 유명백화점 2곳(신세계, 현대)과 고창마켓 등에서 판매된 지리적표시제 고창수박 5000등이 완판됐다.

또한, 올해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박의 도매 시세도 평균 10% 이상

상승해 지역 농가의 수익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고창군은 이번 시즌 고창수박 판매 등으로 약 80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지리적표시제 등록 명품수박 첫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홍보·관측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5월31일 열린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경매 행사에선 고창수박 한 덩이가 500만원에 낙찰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당시 현장에는 언론과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모여들며 명품 고창수박에 대한 관

심을 실감케 했다.

출시 직후 각종 방송과 신문에 비중 있게 소개됐고, ‘제2회 고창북분자수박축제’ 판매부스에서도 밤 늦게까지 줄이 이어지며 고창군 농업 브랜드 전략의 성과를 증명해 냈다.

고창군은 지난해 9월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 본격적인 명품화 사업에 착수했다. 품질 혁신, 명품 생산자 검증, 브랜드 전략을 3축으로 하는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데 전례 없는 성과를 일궈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

정읍 농협 3곳,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동참

정읍시의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지역 농협들이 힘을 보탰다. 정읍농협, 샘골농협, 태인농협이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제고에 동참을 선언했다.

시는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전개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중), 태인농협(조합장 한상근)이 뜻을 모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은 정읍 인구를 10만 명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월 생활임금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 전입을 유도하는 ‘정읍사랑 주스값기’ △사계절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정읍사랑 머무르기’ △의

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읍사랑 함께살기’라는 3대 중점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로 세 농협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은 물론, 로컬 특화 사업과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인구 증대와 지역사회 활력 회복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는 실거주 중인 미전입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시민 생활권 전반에 걸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체류와 전입을 동시에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감소는 특정 기관만의 과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옛 우체국 철거 완료… 도시광장 조성 시동

정읍시가 옛 정읍우체국 철거를 마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시광장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최근 옛 정읍우체국 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옛 정읍우체국은 1970년 준공 이후 반세기 이상 지역 주민에게 우편 택배, 금융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온 공간이다. 그러나 2022년 연자동으로 신청사가 이전되면서 건물은 노후화됐고,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시광장 조성 방안을 마련해 철거를 추진해왔다.

시는 철거를 마친 이 부지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시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적 만남과 문화활동, 지역 축제까지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보행 접근성 원도심의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중심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정읍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도심 속 문화·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제362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6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10일간 진행되었으며, 군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결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